



성체-사랑의 결정체

오늘 복음은 생명의 빵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심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영하는 사람은 당신 안에 머무르게 되고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게 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단순한 영함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결국 살아간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성체를 영한다는 것은 벼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사랑, 심지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살겠다는 일종의 다짐이요 결심인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할 때마다 그렇게 매번 새롭게 다짐하고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쌓아가다 보면, 인내심을 가지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다 보면 내성이 생기고 습관처럼 몸에 배여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자신을 찔러주고 상처 주는 이들을 위해 대신 값을 치르고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것이 말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각자의 노력만으로는 다다를 수 없는 그런 신적 경지의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예 시도조차 버거운 일들이며 설령 시도했다 해도 이내 후회하며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도우심에 힘입어 그렇게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일상이 은총을 통해 그런 사랑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희망하면서 말입니다. 비관하며 염세주의로 일관해서는 어쩌면 한 미나를 땅에 묻어둔 종의 운명(루카 19,20 참조)을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부족하더라도 노력한 만큼 그만큼 더 후하게 쳐주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기에 하나씩 인내심과 희망을 가지고 그런 사랑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설령 공과 덕이 부족하다 해도 이런 우리의 부단한 노력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체는 바로 이런 사랑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인 오늘 전통적으로 많은 본당에서 어린이들의 첫영성체를 거행하게 됩니다. 첫영성체하는 어린이들을 축복하며 떨리고 설렜던 우리 각자의 그때 그 모습들을 떠올려봅니다. 예수님을 처음으로 모시던 그 첫 마음으로, 첫영성체 후 드렸던 그 기도를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적 삶을 더욱 충실히 살아가야겠습니다.



전병이 요아킴 신부 | 태평동본당 주임

주일 진례

제 1 독 서	신명 8,2-3,14ㄴ-16ㄱ
화 답 송	◎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제 2 독 서	1코린 10,16-17
복 음	요한 6,51-58

30년 동안 ‘나’를 지켜준 시

서정홍 안젤로 시인/ 가톨릭문인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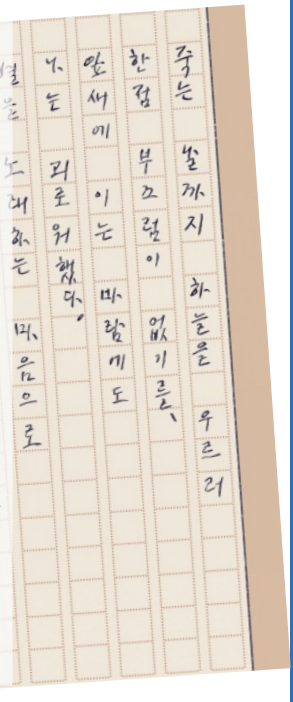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좋아하는 윤동주 시인이 쓴 <서시>입니다. 일제에 나라를 빼앗겨, 온 겨레가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한 때(1941년 11월 20일)에 쓴 시입니다. 그때 윤동주 시인의 나이는 2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쓴 지가 8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를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1945년 2월 16일 오전 3시 36분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29세 꽃다운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시인이 쓴 시는 영원히 가슴에 남아, 편리함과 탐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 양심을 흔들어놓습니다. 지구온난화에서 지구 가열화로, 기후변화에서 기후 위기로, 이젠 기후 비상사태란 말까지 들립니다. 하느님이 손수 만드신 창조질서가 무너져 내리는데도, 먹고살기 위해(?) 바쁘게 살아가느라 식구들이 모여 시 한 편 읽고 마음 나눌 여유조차 없습니다.

시장에서 30년째 ‘기름집’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고추와 도토리도 빵아 주고, 떡도 해 주고, 참기름과 들기름도 짜 주는 집인데, 사람들은 그냥 ‘기름집’이라 합니다. 그 친구 가게 문을 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달력? 가족사진? 아니면 광고? 궁금하시지요? 빗바랜 벽 한 가운데 시 한 편이 붙어 있습니다. 그 시가 윤동주 <서시>입니다. 시장에서 ‘기름집’을 하는 친구가 시를 좋아한다니? 어울리지 않나요? 아니면?

어느 날, 손님이 뜬한 시간에 그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저 벽에 붙어 있는 윤동주 ‘서시’ 말이야. 붙여둔 이유가 있는가?” “으음, 이런 말 하기 부끄럽구먼.” “무슨 비밀이라도?” “그런 건 아닐세. 손님 가운데 말이야. 꼭 국산 참깨로 참기름을 짜 달라는 사람이 있어.” “그렇지. 우리 아내도 국산 참기름을 좋아하지.” “국산 참기름을 짤 때, 값이 싼 중국산 참깨를 반쯤 넣어도 손님들은 잘 몰라. 자네도 잘 모를걸.” “…….” “30년째 기름집을 하면서 나도 사람인지라, 가끔 욕심이 올라올 때가 있단 말이야. 국산 참기름을 짤 때, 중국산 참깨를 아무도 몰래 반쯤 넣고 싶단 말이지.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스멀스멀 올라올 때 마다, 내 손으로 벽에 붙여놓은 윤동주 <서시>를 마음속으로 자꾸 읽게 되더라고.” “…….”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이 구절을 천천히 몇 번 읽고 나면 나도 모르게 시키면 욕심이 사라지고 마음이 맑아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30년 동안 시가 나를 지켜준 셈이야. 저 시가 없었으면 양심을 속이고 부자가 될 수도 있었는데. 하하하.”

그 친구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도 모르게 그 친구가 좋아하는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월남동성당 ‘본당의 날’ 행사



월남동본당(주임: 박창균 시메온 신부)은 지난 5월 14일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본당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일정은 교육관 성당에서 주일미사를 봉헌하고,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성모당 앞 잔디밭에서 본당 신자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링 던지기, 성경 퀴즈, 보물찾기, 노래자랑 등 각종 게임과 레크리에이션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 웃음꽃 피는 잔치가 되었다. 이번 행사는 월남동본당 주임 사제의 2023년 사목방침인 ‘화목한 공동체 가꾸기’를 실천하는 시간이 되었다.

거창성당 ‘83주년 본당의 날’ 행사



거창본당(주임: 이진수 스테파노 신부)은 지난 5월 28일 창남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본당 설립 83주년 기념 ‘본당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500여 명의 신자들이 참석하였으며, 본당 신자 모두가 함께하는 OX 퀴즈, 공 넘기기, 풍선 터트리기, 탁구공 릴레이, 코끼리 코 페널티킥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져 신자들 간의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끝으로 파견미사를 봉헌하며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어떻게 하면 성당에서 결혼할 수 있을까요? 2

■ 사례 3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 명례성지

냉담 중인 갑순이 마리아와 비신자인 갑돌이가 결혼을 했는데 교회에서 관면혼을 하지 않고 결혼식장에서 사회혼만 하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갑돌이는 결혼 후에 돈을 벌기 위해 가족들과 잠시 떨어져 해외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순이 마리아가 신앙생활을 다시 하려고 성당에 나갔는데 주임 신부님께서 마리아 자매님께 혼인장애가 있어 성체를 모실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혼인 장애를 풀고 영성체를 할 수 있을까요?

▶ 해결

신자가 비신자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미신자 장애를 관면 받고 교회에서 관면혼인을 해야 합니다. 사회에서 한 혼인예식과 혼인신고만으로는 신자의 혼인유대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효인 이 혼인을 유효화 시키려면 미신자 장애를 관면 받고 교회에서 관면혼 예식을 다시 하면 됩니다. 갑돌이가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본당 신부님과 상의하여 관면혼인을 하게 되면 '단순 유효화'로써 혼인의 유대를 인정받고 영성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돌이가 외국에서 오랫동안 귀국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갑돌이가 교회에서 하는 관면혼을 거부하며 성당에 오지 않는다면 본당 신부님과 상의하여 관면혼의 예식을 생략하고 처음 사회혼을 했을 때 이루었던 혼인합의를 교구 직권자의 이름으로 인정해 주는 '근본 유효화'를 신청하면 됩니다. 근본 유효화를 신청하는 방법은 본당 신부님과 면담하여 본당 신부님께서 '혼인의 근본 유효화를 위한 청원자의 진술서'와 '혼인의 근본 유효화를 위한 사제의 건의서'를 교구 법원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교구 사무처에서 처리해 오던 '혼인의 근본 유효화' 업무가 2023년 5월 26일부로 교구 법원에 이관되었습니다.)

■ 사례 4

신자인 마리아와 비신자인 갑돌이는 교회에서 '관면혼'을 하지 않고 혼인신고만 하여 살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였고, 마리아는 성당에서 아드리아노를 만나 재혼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당에서 결혼할 수 있을까요?

▶ 해결

신자인 갑순이 마리아와 비신자인 갑돌이는 교회에서 '관면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혼인유대가 없는 무효인 혼인입니다. 무효인 혼인을 하다가 이혼을 하였다면 혼인유대를 해소할 이유가 없으므로 본당 신부님께서 '혼인 무효 선고를 위한 조사서'와 '혼인 무효 선고서'를 작성하여 갑순이와 갑돌이의 혼인이 교회법의 형식을 갖추지 않았기에 무효였다는 선고를 내리고 갑순이 마리아와 아드리아노의 '성사혼'을 교회에서 맺으면 됩니다.

사례 4를 보면 신자가 교회에서 '관면혼'이나 '성사혼'을 하지 않은 경우가 이혼을 했을 때 혼인 장애를 더 쉽게 해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이혼할 때를 대비해서 교회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교회혼을 잘 준비 하면서 '가나혼인강좌'를 통해 제대로 된 혼인의 개념을 이해하고 교회의 은총과 축복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부부생활을 더 지혜롭게 만들어 가는 길입니다.

● 가나혼인강좌란?

혼인을 앞둔 예비부부들에게 혼인의 중요성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전하고 서로의 존중과 배려를 통해 성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3년 교구 가나혼인강좌 교육일정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8일	휴강	20일	17일	15일	19일	17일



마산교구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변화는 처음부터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성장하고 있으며, 삶의 많은 측면에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분께서 항상 가까이 계시심을 믿으며, 실제로 그분은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나가는 길에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하느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삶의 본보기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 지체를 지닌 하나의 살아 있는 몸이며, 우리 그라츠-섹кау 교구민들과 마산교구의 여러분 역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어머니이신 교회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개개인이 변해가듯 교회 역시 변화합니다. 때때로 교회는 더 빠르게 느린 변화 속에 놓여지기도 합니다.

저에게 많은 감동을 주셨던 존경하는 교구장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님의 사임은 마산교구의 교회적 삶에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충만했던 그분의 직무수행과 우정에 감사드리며 진심 어린 각별한 인사를 보냅니다. 저의 온 마음을 담아 그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그간 주교직 안에서 젊어지셔야 했던 수많은 근심들로부터 멀어져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더욱 가까이 일치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이 주교님께 주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곳 지역에서 곧잘 쓰는 표현으로 사랑하는 형제 주교님, 진심으로 “하느님께 서 갓아주십시오!”

슈타이어마르크주의 모든 그라츠-섹кау 교구민들은, 하느님께 대한 신뢰를 지니고 믿음 안에 앞장서서 미래를 향해 대담하게 마산교구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목자를 하루빨리 보내주시기를 마음을 모아 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리아젤Mariazell에 계신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변화는 걸음으로 드러납니다. 저는 여러분의 새 교구청이 완성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 사진으로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새롭게 출발하고 변화하는 교회의 표징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하느님 안에 굳게 닿을 내리는 일은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삶과 언행을 통해 이웃에게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분명하게 전하도록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하나의 희망을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사명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격려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공생과 인간관계, 노동과 사랑, 권력과 봉사, 있어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는 표징과 행위를 지닌 생동하는 예언자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 그라츠-섹кау 교구도 코로나 대유행 이후의 뚜렷한 변화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프지만 우리의 양 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일미사에 참여하는 신자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길을 떠나 젊은이와 어르신들이 함께 걸어가갈 수 있는 새로운 사목적 길들을 열어가는 데에 열과 성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구 안에 새로운 사목구역들을 설정한 것은 저희 교구가 미래를 향해 내딛는 하나의 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의 모든 이들은 존재의 깊은 곳으로부터 그리스도를 체험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나긴 호흡이 필요하기에 여러분의 기도를 청하게 됩니다.

저는 기쁨과 진심 어린 결속 안에서 안명옥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주교님과 박정일 미카엘 주교님께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교구의 전환기를 맞아 돌보고 계신 교구장 서리 신은근 바오로 신부님께 하느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의 길을 걸어가는 일은 도전이자 기쁨입니다. 이 길은 언제나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더불어 평화로운 공존을 지향해야 합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 안에서 대륙을 넘어 우리의 협력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 나가도록 합시다.

2023년 6월 11일 자매교구의 날

그라츠-섹кау 교구장

빌헬름 크라우트바셀 주교



Wilhelm Krautwaschl
Bischof Wilhelm Krautwaschl

그라츠-섹кау교구를 위한 기도

온 인류를 사랑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느님 아버지,
그라츠교구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당신 안에 저희 모두가 한 형제자매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나눔으로 사랑을 실천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그라츠교구의
모든 형제자매들을 성령의 풍부한 열매로 축복해 주소서.

특히 부족한 사제성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라츠교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어 그라츠교구가 발전하게 하소서.
또한 그라츠교구와 마산교구의 자매결연이
당신의 모습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당신 사랑의 표지가 되게 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교구장 인준

베버 주교 방한일지

이태 전 『그라츠-세카우교구와의 동행 50년』을 발간하였다. 그때는 미처 하지 못했던 요한 베버 주교의 방한일지를 올해 그라츠 자매교구의 날을 맞이하며 번역하였다.

1971년 그라츠교구와의 자매결연이 성사되었고, 1976년 마산교구 설정 10주년을 맞아 그라츠교구장 요한 베버 주교가 내방했다. 베버 주교는 방한일지에 보고 듣고 체험한 내용과 느낌을 고스란히 남겨두었다. 그분의 자상한 성품과 일에 대한 섬세함과 자매교구에 대한 애정을 담고 있다. 또한 당시의 우리 교구 상황과 한국 사회의 분위기도 엿볼 수 있다.

10월 11일에는 오스트리아 그라츠에서 비인, 모스크바, 도쿄를 거쳐 서울에 도착하기까지의 길고 긴 경유 과정이 적혀 있다. 12일, 13일에는 서울에서 사회상을 파악하고 오스트리아 출신 수도자들과의 만남, 서울대교구 주교좌성당 방문 등. 14일에는 대구로 가서 대구대교구 및 몇 군데 기관을 방문하고, 선교사들과 저녁식사 후 포항으로 이동 예수성심시녀회 숙소에서 들.

15일 경주에서 드디어 장병화 주교, 하 마리아 선생, 김태수 회장과 만남. 부산으로 이동하여 부산시장과 저녁식사 후 출발, 비로소 마산 시내에 도착한다.

16일 장병화 주교가 마산교구에 대한 브리핑. 주교좌 남성동성당 등 4분당 방문 후 마산시장과 점심식사. 자유무역 시찰. 한일합섬 시찰. 큰 여교 강당에서 환영의 밤. 17일 마산교구 설정 10주년 기념미사와 기념식. 오스트리아에서 지원한 진영성모의원 방문. 양덕동성당 52명 세례 집전. 18일 진해 중앙동성당, 해군사령부, 육군대학, 경화동성당 방문 후 해군함정 타고 마산. 창원공단으로 가서 냉장과 공장 시찰. 19일 시골 본당 고성 방문. 황리공소에서 막걸리. 경철 보트 타고 한산도 방문. 20일 오후 5시 10분 김해공항에서 떠날 때까지의 기록이 빼곡하다.

베버 주교는 자매교구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며 관계를 이어나갈 목표도 구상했다. 귀하고 소중한 일지를 이렇게만 소개하고, 다음 기회에 충분한 지면을 할애해 게재할 계획이다.



그라츠에서 인사드립니다

김태호 스테파노 신부(그라츠교구 현지사목)

찬미 예수님! 그라츠교구 현지인 사목을 위해 파견된 김태호 스테파노 신부입니다. 저는 2022년 2월 그라츠에 왔으며 현재 그라츠 신학교에 거주하면서, 평일에는 독일어 학원에 다니고 주말에는 그라츠 남쪽 작은 도시 도이칠란트스베르크(Deutschlandsberg) 성당 보좌 신부로 사목을 하고 있습니다.

1971년 우리 마산교구와 자매결연을 한 그라츠교구는 우리에게 물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당시 오스트리아도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은 후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한국이라는 나라, 마산이라는 신생 교구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현재 유럽의 교회들은 성소자 부족이라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라츠교구도 사제가 부족해서 신부 한 명이 주일에 서너 개 본당을 돌아다니며 미사를 드립니다. 새로 입학하는 신학생은 거의 없는데, 현재 그라츠 신학교에는 열 명 남짓한 신학생이 살고 있습니다.

저도 매 주일 세 개 이상의 본당을 방문하여 미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독일어가 익숙하지 않고 발음도 좋지 않지만, 신자분들은 늘 저에게 친절하게 말을 건네며 응원해 주십니다. “신부님, 독일어는 참 어려운 언어입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언어와는 너무 달라서 신부님에게 더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오셔서 미사를 집전해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신부님은 잘하고 계십니다. 힘내세요!”

언어와 문화 차이로 겪는 어려움도 큼니다. 하지만 그라츠와 마산의 신자분들이 주시는 격려와 기도가 이곳에서 현지인 사목을 하는 박준석 요셉 신부님, 김정훈 미카엘 신부님과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글을 통해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우리 교구와 그라츠교구의 자매결연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오늘, 하느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신 능력으로 그라츠교구가 직면해 있는 ‘성소자 부족’이라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도록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멀리서 우리 교구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억할 선종 사제
문영수(사본) 신부
1994년 6월 14일



기억할 선종 사제
정삼규(요한) 몬시뇰
1999년 6월 15일

故 정삼규 요한 몬시뇰 24주기 추모미사

일시: 6월 15일(목) 11:00
장소: 고성 이화공원묘원 성직자 묘역
문의: 정영규 신부 010·3599·2009
▶미사 후 점심 식사 준비

교구장 서리 동정

평협 수산증자 방류 사업
일시: 6월 15일(목) 14:00
장소: 진동 광암항 일원

견진성사

일시: 6월 18일(주일)
장소: 남지성당
집전: 교구장 서리 신은근(바오로) 신부

교구/분당

교구 성경특강-거제·진주지구

일시: 6월 12일(월) 10:00
장소: 칠암동성당

교구 성경특강-마산·창원지구

일시: 6월 13일(화) 10:00
장소: 명서동성당

성지 및 사적지위원회

일시: 6월 13일(화) 11:00
장소: 교구청

사제 성화의 날 행사-지역별

일시: 6월 16일(금)

6월 가나혼인강좌

일시: 6월 18일(주일) 13:00
장소: 교구청

위원회/기관/단체

교구 체나콜로 다락방 6월 기도모임

일시: 6월 19일(월) 13:00~15:00
장소: 교구청 2층 성당
준비물: 메시지 책, 미사 준비
문의: 회장 010·9399·5454

218차 ME주말 안내

일시: 7월 21일(금) 19:00~23일(주일) 2박 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혼인한 지 3년 이상 된 부부
신청: 전화 및 문자로 신청
(문자발송-부부 이름과 연락처, 본당 기재)
문의: 배길우(바오로) 010·2057·3319
안은정(바울리나) 010·4598·7530

마산가정상담센터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외도),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마산역 앞 가톨릭여성회관(2층)
문의: 055·296·9126/ 297·3288
카페: cafe.daum.net/magapok
▶상담내용과 상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통영시가정폭력상담소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중독),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통영시 보건소 옆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1층)
카페: cafe.daum.net/6407795/ 인스타: tygapok
문의: 055·640·7795/ ★일시보호센터 운영
▶상담내용과 상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기타

전인적인 치유세미나

일시: 5월 26일(금)~8월 25일(금) 매주 금요일
장소: 청주교구 초청성령회관
내용: 영적치유, 내적치유, 육적치유, 해방기도
강사: 오웅진 신부, 신상현 수사, 한연홍 신부, 박제천 신부, 맹진학 신부, 김명심 신부, 윤민재 베드로 신부 외 전국유명강사
문의: 043·213·9103, 010·8466·8238

수도 전통에 따른 렉시오디비나(성독)

일시: 6월 24일(토) 10:00~17:30
장소: 부산 분도 명상의 집
준비물: 미사 준비, 성경/ 참가비: 3만 원
문의: 010·9996·3361(박 사라)

예수회센터 사전녹화 동영상 강좌 7월 개강

내용: 의식(양심)성찰, 어떻게 할 것인가?-권오면 신부
·칼 융의 심리유형론과 MBTI-김정택 신부
·육망! 심리적 돌봄과 영적 성장의 문(門)-유성모 신부
·가톨릭 사회교리의 원리와 핵심 이슈들-전주희 수사
·신약성경과 영성생활-임숙희 박사
·육화의 영성-손우배 신부
기간: 각 5~6주 과정
E-메일과 문자로 동영상 발송
문의: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20:00
장소: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2층
대상: 신자, 일반인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 주례	문의
교구	6월 12일(월) 19:00	중앙동성당	주님의 약속(신명 6:18-19)	문진화 바울라(서울대교구)	박혁호 미카엘 신부	010·5247·9900
청년	매주(수) 19:30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4층	성령기도회	19:30 미사 봉헌/ 20:00 기도회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6월 17일(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vocationoh@daum.net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살레시오회	6월 18일(주일)	창원 젊음의 집	유명일 신부 010·6221·3520	대상: 중1~35세 이하 미혼 남성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신세계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억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트래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포도잼 410g
본당이나 시절,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 010-2652-0706

가톨릭 트래블
산티아고 순례길 41일
루르드/ 파티마 성지 순례 일정
519만원(+1,800유로, 10월 2일)
070-4086-0207 www.catravel.co.kr

동우 건축 인테리어
아파트, 주택 리모델링 및 화장실 시공
정직한 시공 / 가성비 뛰어난 시공 비용
일단 부담 없이 견적을 받아 보십시오
강동주 (세레자 요한)
010.5053.5393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
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운철(요한 보스코) 신부(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문의: 010·3551·2038

민족화해상 시상식 및 평화아카데미

일시: 6월 14일(수) 19:00
장소: 가톨릭 문화원
(구, 교구청)
내용: 1부- 시상식
2부-평화아카데미
주제: 정전협정과
9.19 군사합의
그리고 작은 연방
강사: 이시우
(사진가, 평화운동가)



문의: 교구 민족화해위원회 055·249·7168

신앙대학 총동문회 신앙강좌

신앙대학 총동문회에서 졸업생들을 위한
신앙강좌를 개최합니다.

일시: 6월 24일(토) 12:40~18:00
장소: 교구청 1층 대회의실
주제: 중세교회사
강사: 신은근 바오로 신부(교구장 서리)
참가비: 1만 원
(강사비, 간식비 포함)
신청: 본당 사무실
문의: 총동문회장
010·8524·1543,
사목국
055·249·7021~2



교구 평협 수산종자 방류 사업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찬미 받으소서」 실천과 해양 생태환경 회복의
일환으로 '수산종자 방류 사업'을 실시합니다.

일시: 6월 15일(목) 14:00~16:00(13:00-사전행사)
장소: 마산합포구 진동면 광암해안길16-1 광암항
일원(창원서부수협 광암지소 앞)
준비물: 개인 물병에 물, 양산 혹은 모자, 개인 손수건
▶ 본 행사는 일회용품 줄이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 200여 명(본당 회장단, 지역주민, 환경단체,
경남해양수산고등학교 등)
주최: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여성협의회,
사단법인 한국수산종자산업협회
주관: 교구 평협 생태환경분과 위원회
문의: 교구 평협 055·249·7114



일상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누리는 기쁨을 나누다

숨은 행복 찾기

평범하기에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고 무심하게 넘기기
쉬운 일상에서 깨알같이 모습을 드러내는 행복을 발견하
고 누리는 기쁨과 복된 만남을 나누는 에세이다.

『사방이 온통 행복인데』의 저자 이충무 교수의 두 번째
수필 모음집으로 <대전주보>에 연재하고 있는 글들에서
뽑아 엮었다. 따뜻한 위로, 기분 좋은 설렘, 짧지만 긴 여운이 담긴 에
세이들의 끝에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느님을 마주할 수 있도록 초대한다.
술술 풀리는 실타래처럼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들과 사순, 부활,
성탄을 맞는 작은 마음 조각들은 읽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며 더 크고 넓
게 기쁨과 행복을 퍼뜨린다.

•지은이: 이충무

•출판: 바오로딸출판사



제17회 마산교구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

- 자 격: 등단하지 않은 교구 천주교 신자
- 분 야: 시 5편 이상/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1편/ 동화 30매 내외 1편
- 접수처: 천주교 마산교구 사무처 홍보부(51796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죽헌로 72)
- 마 감: 9월 27일(수) 도착분
- 당선자: 각 부문 교구장 상패와 상금 50만 원(소설 70만 원)
- 기 타: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문학작품이어야 함,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작품 말미에 E-mail,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세례명, 소속 본당을 명기할 것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결투부에는 '가톨릭문학 신인상 응모'라고 명기할 것
워드프로세서로 원고를 작성할 때에는 마지막 장에 원고지 매수를 기록할 것



단 지파의 이주(판관기 17-18장)

김영선 루시아 수녀/ 광주가톨릭대학교

판관기의 부록으로 여겨지는 판관기 17-21장에는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임금이 없었다”는 언급이 자주 나타납니다(판관 17,6; 18,1; 19,1; 21,25 참조). 이는 임금이 없던 시절의 혼란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판관기 17-18장은 특히 그 시절의 종교적인 혼란상을 보여줍니다. 판관기 17장이 미카의 조각 신상에 관한 이야기라면, 18장은 단 지파의 이주에 관한 이야기이며, 두 이야기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판관기 17장의 주인공인 미카는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 사는 사람입니다. 에프라임 지파는 단 지파의 동쪽에 위치한 지파로 서로 경계가 맞닿아 있습니다. 에프라임 산악 지방의 대표적인 성읍은 베텔과 실로입니다. 미카의 어머니는 상당히 부자였던가 봅니다. 누군가 그 어머니에게서 은 천백 세켈을 훔쳐 갔고, 그 어머니는 돈을 훔친 이를 공개적으로 저주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미카는 그 돈을 훔친 자가 자신이라고 고백하며 어머니께 돈을 돌려드립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돈을 훔친 자에게 내렸던 저주를 상쇄하려는 듯이 아들을 축복하면서, 그 돈은 아들을 위해 주님께 봉헌한 것이었고, 그것으로 조각 신상과 주조 신상을 만들려 하였다고 말합니다. 미카의 어머니는 은 이백 세켈로 조각 신상과 주조 신상을 만들어 아들에게 주었고, 미카는 그것을 신당에 모셨습니다. 또 에봇과 수호신들을 만들어 신당에 두고, 그것들을 돌보도록 자기 아들에게 사제 직무를 맡겼습니다. 신명기계 역사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모두 하느님의 계명을 어긴 행위입니다. 다른 신들의 상을 만들어 섬기고, 레위 지파도 아닌 사람을 사제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교적인 혼란상을 두고 판관기의 저자는 그 시대에는 임금이 없어서 저마다 제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행동하였다고 말합니다(17,6 참조). 그런데 베들레헴에 살던 한 레위인이 다른 지방으로 이주하려고 떠나다가 미카의 집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미카는 그를 자기 신당의 사제로 고용하고, 레위인이 그의 사제가 되었으니 주님께서 잘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그때 단 지파는 필리스티아인들의 압박을 견딜 수 없어서 상속지를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정착지를 찾기 위하여 다섯 명의 정탐꾼들을 파견합니다. 이들 또한 미카의 집에 들러 하룻

밤을 묵게 되는데, 그곳에 머물던 레위인 사제에게 그들의 성공 여부를 하느님께 여쭙게 합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시리라는 응답을 들은 그들은 라이스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주변에 그들을 괴롭히는 이들이 없었기에 조용하고 태평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 정탐꾼들은 자기 친족들에게 돌아와 이 땅을 차지하자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단 지파는 무장한 육백 명과 함께 라이스를 향해 떠나다가 미카의 집에 들러 그의 조각 신상과 에봇, 수호신들과 주조 신상을 꺼내 오고, 레위인 사제마저 데리고 갑니다. 미카는 자기 이웃과 함께 단 지파의 뒤를 쫓았지만 단 지파의 힘이 더 우세하였기에 포기하고 돌아섭니다. 단 지파는 라이스에 이르자 태평스레 살던 그곳의 백성들을 죽이고 성읍을 불사른 후 그곳에 정착하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읍의 이름을 단으로 고쳐 불렀습니다. 단의 자손들은 유배를 갈 때까지 미카의 조각 신상을 섬겼고, 레위인 사제 요나탄의 후손들이 대대로 단 지파의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집이 실로에 있었지만 단에서 미카의 조각 신상을 섬겼습니다. 만약 미카의 집이 베텔에 있었다면 이 이야기는 단과 베텔의 불법적인 성소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처럼 판관기 17-18장은 올바른 지도자가 없을 때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올바른 지도력은 이스라엘이 이런 종교적인 타락에 빠지지 않도록 이끌어야 함을 설파합니다.